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느헤미야의 개혁 II

### (느 13:4-22)

## The Reformation of Nehemiah II

### (Neh. 13:4-22)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습에서 구별되어 세상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은 거룩한 생활을 위한 이 세상의 잘못된 습관 혹은 죄들을 분리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If we hear God's word in our spirit and we challenge ourselves in His grace, the first arising change is that we manage to control the wrong habits that prevent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m and to be cleaned from our sins. We must emit Jesus' fragrance, being very different from the manners and customs in the world.

The first reformation of Nehemiah with God's word was to separate God's word from the faults, customs, and sins so we can live a holy life. However, his second reformation was to preserve the reverence and holiness of the sanctuary.

###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두 번째 개혁

### The Second Reformation Together with God's Word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잡으며 거룩하게 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4절).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원수 도비아와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첫 장면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원수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헌물, 십일조와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도 거룩한 곳에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다는 것은 성전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을 원수 도비아에게 내 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헌물들을 마음껏 도적질 하도록 방관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근심했습니다(8절). 여기서 근심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여 도비아의 방에 있던 세간들을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도비아를 내쫓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호통을 치시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엮으시고 소떼와 양떼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도비아처럼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상업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모두 세속주의적 가치관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교회로 항상 새롭게 하여,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고, 교회와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hile he came back to Jerusalem again and tried to reform, Nehemiah, tried to keep and preserve the holiness of the sanctuary in good order.

“Before this, Eliashib the priest had been put in charge of the storerooms of the house of our God. H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obiah”(v. 4). Eliashib the priest who appeared here had a lot of problems. He, as a priest, was continually associated with Tobiah who was an enemy of Israel. From the first moment at the beginning of Nehemiah, Sanballat and Tobiah sneered at God's people, threatened them, and put a curse on them. Those who put the wire on Nehemiah were the enemy of God and the Israelites.

However, Eliashib had provided a large room in God's holy temple for God's enemy, Tobiah. That room was used to store the people's holy offerings, tithes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priests. In such a sacred place, there was the dirtiest and ugliest man.

The room to store the tithes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priests was the office where all the financial affairs in the temple were handled. However, the fact that the room was given to the enemy Tobiah ignorantly placed Tobiah in the position to steal the holy offerings to God as much as he could. And actually such things happened. If Nehemiah was in Jerusalem, at that time, such things would never have happened.

Nehemiah was worried (v. 8). Here, the word 'worry' which refers to 'yare' in Hebrew means 'anger'. Nehemiah was angry, and threw Tobiah's household goods out of the room. He kicked Tobiah out of the temple, and cleansed it.

Jesus made a whip by a piece of string, and gave a good scolding,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in the temple and drove out a herd of cattle and sheep from the temple.

God's temple is a holy place. We must keep it holy. Nowadays, like Tobiah inside the church, there are many people who come to church holding on to worldly value and commercialism in their hearts. All the things that are not based on God's word are of the secular world.

### My beloved Christians!

The church must continually be reformed. We must always make the biblical church anew and make our church holy. By recognizing in the order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before God and people, I earnestly hope that all of you will be used by God as an instrument of holiness.

#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 통과되다

-9월25일(주) 공동의회에서-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이 통과되었다.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2층에서 열린 공동의회에서 임시당회장 이수종목사로부터 이번 공동의회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종운 원로목사의 사회로 열린 청빙청원 투표에서 공동의회 참석 세례교인 1,182명 중 찬성 1,027표, 반대 151표, 무효 4표로 86.9%의 찬성을 얻음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10월4일(화)에 열리는 영동시찰회에 노회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올려 위임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 2011 사명자 대회

10월9일(주) 찬양예배시 발대식 가져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말씀,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인 「2011 사명자대회」가 10월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명자 대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를 주제로 10월9일(주)~11월27일(주) 50일간 진행 된다. 특별히 11월21일(월)부터 26일(토)는 새벽 5시 부터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 강사로 박노철 목사가 선다.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열열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다락방기도, 전도- 전 교인 1인1명 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문서전도 등 주님이 기뻐하실 많은 행사가 진행된다. 기도로 은혜받는 기회가 될길 기도한다.



## 제49회 강남노회 정기노회

11월8일(화) 서울교회에서

제49회 강남노회 정기노회가 11월8일(화) 오전9시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지난 8월 총회 목사고시에 합

격한 우리 교회 박노철 목사가 서약을 하고 우리 교단 목사로 임직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1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6일(주일) / 본선 : 10월 21일(금) 오후 7시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성경암송 본문은 '로마서11-16장'이며 교육1-2국, 교육3-5국, 그리고 영어암송부로 구분하여 부서별 예선을 거쳐 본선을 진행한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 성경으로 한다.

예선은 10월 16일(주일)에 부서별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본선은 10월 21일(금) 오후 7시 602, 603, 609호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암송대회는 3개조로 나누어서 본선 진행을 하며,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교육1-2국- 김광신 장로, 홍성주 장로, 박진아 목사, 교육3-5국- 김대호 장로, 박두호

장로, 박광일 목사, 영어 암송- 오광환 장로, 스티븐 마티노리치 목사, 황광 목사가 각각 수고한다.

발표는 10월 23일(주) 순례자에 하며 당일 오후 찬양예배시 시상하며 암송한다.

심사는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정확도(70) : 전체성경 구절을 완전히 암송(한번수정허용)하는 경우 70점, 2회 수정시부터는 1회수정시마다 1점 감점, 틀리면 2점 감점, 빼먹는 경우는 분량 따라 감점한다.

태도(20) : 자세는 청중을 골고루 바라보아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모습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A:20점, B:15점, C:10점, D:5점, E:0점).

반응도(10)는 회중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호응은 어떤가에 따라 평가한다(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2]

(문 19)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창9:27)는 노아의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이 말씀은 26절의 연속으로 나온 예언입니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확장이라는 뜻을 가진 야벳은 이를 그대로 창대케 하였고 썸의 장막에 거하시는 이는 야벳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썸에게 종교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야벳에게는 세상의 축복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벳의 자손과 영토를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온 유럽과 아시아 일부 그리고 미대륙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주전 330년 경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파사 제국의 영토를 완전히 점령했고 거기에 유럽영역을 추가했습니다. 이 정복된 영토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3세기가 넘도록 그가 세운 제국이 세력을 펼쳤습니다. 야벳(헬라인과 로마인의 조상은 썸의 장막에 거한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①야벳이 유명하다는 뜻을 가진 썸을 정복하여 그 장막에 거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유명한 자의 장소에 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②또한 여기서 주역은 야벳이 아니고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썸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 즉 종교적 축복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후자의 해석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야벳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번영을 통해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현된 예언입니다.

알렉산더 정복 이전에 가나안은 주전 1,400년 경에 여호수아의 군대로 인해 침범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미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었고 알렉산더 정복 시엔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썸은 하늘 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썸의 장막에 거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며 그 자손을 통해 교회가 계속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장자 상속권은 함이 배제된 채 썸과 야벳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권리를 분할했으나 가나안은 그들 둘의 종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벳에게는 두 몫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창대케 하셨습니다. 반면에 영적 권세는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신 썸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썸의 장막에 거하신다"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계속)

2011 사명자대회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사명자대회!

## 사명자대회 본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울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탄생하였다. 금년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깃발을 들고 교회설립 20주년, 사명자대회 21회째가 되는 해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님의 품 되신 서울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열 열이 기도하고, 사명자로 담대히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번 사명자대회 기간 중에 서울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열심을 내서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 연속기도 참여

1층 웨스트민스트 홀을 24시간 개방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연속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각 교구를 통하여 기도시간을 배정 받은 성도는 그 시간에 꼭 기

도하며, 배정받지 못한 성도님들도 연속기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최소 10일에 1회 이상, 1인 1시간을 기본으로 50일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5회 이상 연속기도에 참여를 바라고 있다. 1층 로비에 있는 기도현황판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시고 연속기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

### 2. 성경읽기 및 성경암송하기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카드에 기록된 기도를 새벽기도회 때 합심하여 드리고, 연속기도를 통하여 배정된 성경말씀(5장)을 또 읽고 기도카드의 내용으로 기도한다.

올해 성경암송은 로마서 11장~16장으로 10월 중에 대회가 열릴 예정이니 모두 적극 참여를 바라며, 암송이 힘든 성도는 성경을 필사함도 은혜로 여기고 많은 참여를 권한다.

### 3. 특별전도 실시

말씀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전도회와 선교회 그리고 70인전도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본 교

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전도하며, 한 가족이면서 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특별전도하는 것이다.

또 교구별로 날짜를 정하여 그 지역의 어느 한 곳에서 함께 전도함으로 우리의 전도 지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다락방 모임에 특별전도할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11월 27일 주일 예배에 인도자와 함께 참석하여 각 예배시간에 환영을 받도록 한다. 특별히 2부 예배 후에는 만나홀에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면 좋겠다.

각 선교회와 전도회에선 유희회를 전후로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꼭 실시하고,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회원 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있다.

사명자대회는 한마디로 결단과 헌신 속에 생명을 바쳐 설립한 서울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50일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간임을 명심하고 총력을 기울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2011 사랑의바자

#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



개회예배 후 테이프 커팅



무엇을 고를까?



경품추천



맛있게 익어가는 부침개



좋은 상품을 고르자



기슴까지 시원애 지는 식혜!



맛있게 익어가는 정성들!



날이 흐려도 교회 사랑의 마음은 멈출 수 없다



왕만두 만큼 뜨거운 사랑



가을비도 막을 수 없었던 바자의 열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한미희 (고등부 학부모)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성적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자 아들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역시 바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원은 저마다 달랐지만 자녀들이 깊은 믿음을 갖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학교생활 즐겁게 하고, 몸과 마음 건강하고, 훌륭한 능력을 키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또 대학생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많은 점들이 성장하면서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으로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아들은 공부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또 고맙습니다. 딸은 엄마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신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등부 기도모임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많은 점들이 성장하면서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으로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아들은 공부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또 고맙습니다. 딸은 엄마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신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등부 기도모임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바라는 일을 기도하면서 모임의 다른 부

## 아브라함선교회, 장년5부 야외예배

10월11일(화) / 아가페타운

우리 교회 아브라함선교회(회장 : 이재운 집사), 장년5부(부장:최광성 집사)가 10월 11일(화) 아가페 타운에서 야외예배를 갖는다. 출발은 오전 10시 교회에서 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마리아전도회 주최 바자

루치아노 최 / 10월10일(월)-14일(금) 롯데강남점 8층

마리아전도회(회장 박현영 권사)는 10월10일(월)-14일(금)까지 5일간 롯데강남점 8층 행사장에서 숙녀복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가 열린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카리나 합주단 시작하다

오늘 오후 4시 / 703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카리나 합주단의 첫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703호에서 있다. 많은 여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익투스 찬양단(이사장:설용호 장로, 단장:박만길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류현열 교수(한일장신대 음대 겸임교수)의 지휘로 '평화의 기도', '나주 사랑(Lanri klein곡)', '승천(D.Holk곡)'등 다섯곡을 찬양드리며 이수진 교수(수원대출강)가 피아노 반주를, 이종복 단원과 서울교회 최유현 성도(중앙대학교 음대출강)가 곡중 솔로를 담당한다. 익투스찬양단은 199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찬양단으로 조직되어 13회의 정기연주회, 국가조찬기도회 연주, 남선교회전국대회 등에서 연주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 스데반회 연합 체육대회

10월 3일(월) 오전 10시 - 교회출발 8시 30분

제1, 2 스데반회에서는 당회원과 은퇴장로, 은퇴집사들을 모시고 「2011 스데반회 연합체육대회」를 아가페타운에서 10월 3일(월) 오전 8시30분~오후 5시 까지 갖는다.

- 2011 사랑의 바자 -

- 1% 나눔운동 참여자
- 김준목 임상현 한경신 이훈
- 10% 절제운동 참여자 - 제연주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월2일(주일) 몽골제일교회와 올리아스테교회에서 설교한다. 10월5일(수) 미래한국 대담프로에 초대된다.
- 득남: 11-4다락방 임성현 성도 김혜원 성도
- 주간식당 봉사: 제2권사회(10.2) 빌립선교회(10.9)
- 금주의 식사: 윤운 권사 김혜수 성도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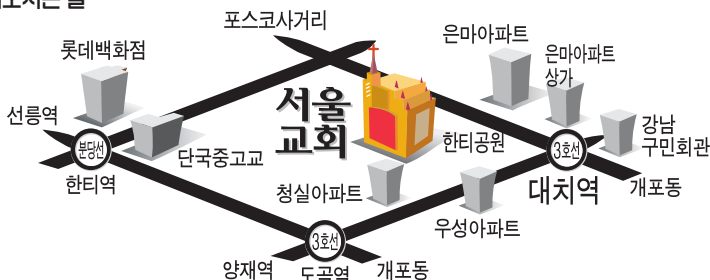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서울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2. 사랑의 바자를 통해 모아진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목적했던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잘 쓰임 받도록
3. 2011 사랑자 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의 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